



서울 마포구 서교동, 500여 개가 넘는 출판사가 자리해 '출판 르네상스 1번지'라 불리는 이곳에 지난 1월, 높이 4층의 세련된 회백색 건물이 들어섰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출판문화센터를 떠나 새로 건물을 지어 주소지를 옮긴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혜경·푸른숲 대표) 회관이다. 이곳엔 '출판학교'로 새롭게 발족한 '서울 북 인스티튜트Seoul Book Institute(원장 홍지웅·열린책들 대표)' 강의실도 갖추고 있는데, 지하와 지상을 합쳐 모두 4개의 강의실이 마련돼 있다. 무엇보다 깔끔한 환경과 최신시설로 수강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서울 북 인스티튜트의 편집자입문강좌가 계획된 화요일,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지하에 있는 강의실로 수강생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미 도착한 이들은 앞쪽부터 자리를 잡았고 담당강사인 출판사 휴머니스트 대표 김학원 씨의 강의를 시작했다. 주제는 '편집의 이해 1_원고와 저자'. 강의를 경청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자못 진지했다.

서울 북 인스티튜트 개관식 열려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주관하는 서울 북 인스티튜트의 개관식이 지난 달 2일 치러졌다. 한국출판인회의가 신사옥을 마련한 이후 처음 손님을 맞는 '집들이' 겸 열린 개관식에는 출판 및 서점 단체장 등

200여 명의 출판인들이 함께 했다.

'출판인 재교육과 신진출판인 양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서울 북 인스티튜트는 지난 1999년 6월 개설된 한국출판아카데미에서 확대·발전된 출판전문교육기관이다. ▶ 출판환경 변화에 따른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 이론과 현장의 창조적 접목으로 사례 연구에 역점을 둔 현장 중심의 교육 ▶ 전문가 중심의 강사진을 통해 출판의 안목과 실력을 넓히는 전문교육 ▶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실무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 출판인으로서의 건전한 직업정신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이라는 목표를 실천하고자 설립됐다.

문화관광부는 5억 원을 지원했고 한국출판인회의에 소속된 67개 출판사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냈다. 강의에 쓰이는 교재도 2억여 원을 투입해 해당 강좌를 담당할 실무자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출판 인재 양성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출판학교'라는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앞으로 개설될 서울 북 인스티튜트의 전 과정은 총 10개 강좌. 현재는 편집자입문과정, 편집장과정, 교정교열과정, 창업과정 4개 강좌만이 개설돼 있다. 편집자입문과정에서는 '편집자를 둘러싼 내·외부환경' '저작권의 이해, 출판계약서 작성법' '편집의 이해' '복디자인' '인문·해외·어린이도서 기획사례' 등의 강

좌를 통해 저자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책의 콘셉트 정하기, 출간된 도서의 홍보와 마케팅 등 출판과 기획 전반을 배울 수 있다.

또한 편집자로서의 자부심과 그에 맞는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책과 편집자의 세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출판편집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편집장과정에서는 편집자입문과정에서 더 나아가 출판 전체의 세부적인 기획을 배우는데, 특히 출판의 전체적인 기획과 전략적인 내용에 중점을 둔다. 편집장의 주업무인 신간기획, 브랜드전략, 저자·역자관리 및 장기적인 출간전략과 일정관리 등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장의 실전 업무사례와 기획사례 및 연구주제 발표가 이뤄진다.

현재 개강된 강좌 외 저작권실무과정, 제작실무과정, 복디자인과정(초급·고급) 등 나머지 6개 강좌는 9월에 개강한다. 이들 강의는 모두 교육관에서 이뤄지며 수강료는 출판디자인과정 69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39만 원이다.

현장의 강사진...

실무중심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선진출판인 양성

실무자·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강사진들도 주목할 만하다. 열린책들 대표인 홍지웅 원장을 비롯, 마음산책 정은숙 대표, 당대비평 변정수 편집위원,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김기태 교수 등 대부분이 현직 출판사 대표이거나 편집장 등 출판 현장에서 오랜 내공을 쌓은 이들이다. 수강생들도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예정 대학생부터 대학원생, 출판사 실무자 등 그 연령층과 직업이 다양하다.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동질감과 친목을 느끼는 이들 사이에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한편 비정기적으로 갖는 모임은 여러 가지 실례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미래 출판계를 짚어갈 인재들의 이러한 '어울림'은 향후 출판계의 밝은 미래를 짐작케 한다.

같은 분야에서 앞서 일을 한 선배 입장에서, 강단에 선 선생님 입장에서, 강사들은 수강생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출판기획부터 제작, 디자인, 책의 유통과 마케팅 등 출판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인 창업과정은 강의기간, 또는 그 후에도 컨설팅이 이어진다.

출판사 취직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도 서울 북 인스티튜트를 많이 찾지만 모두가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 북 인스티튜트 교육사업팀의 백성민 씨는 "사실학원처럼 쉽게 '100퍼센트 취업 보장'이라고 장담하지 않지만 취업 자리는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전 한국출판아카데미의 사례를 보더라도 수료자를 대상으로 출판사에서 취업 의뢰가 들어 오기도 하고, 현장에 있는 강사진들이 자신의 출판사, 또는 다른 출판사들에 직접 추천해 주기도 했다.

한국출판아카데미 1기 졸업생인 박선희(숙명여대출판국 근무) 씨



· 서울시마포구 서교동의 출판학교 '서울 북 인스티튜트', 깔끔한 환경과 최신시설로 수강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는 "출판기획·편집과 관련한 다른 강좌를 듣던 중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국출판아카데미를 수강하게 됐다"며 "당시 수강했던 몇몇 사람들과의 인연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일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한다. 도서출판 이체 한혜경 대표도 한국출판아카데미 7기 졸업생이다. "한국출판아카데미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배워보고 알고 싶었다"는 한씨는 "당시에는 출판입문자가 적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었는데 현재 서울 북 인스티튜트는 강좌가 주제별로 세분화돼 있어 입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고급교육 이수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며 실무교육,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서울 북 인스티튜트는 전문 출판인을 양성하는 곳. 동시에 성숙한 출판문화의 미래를 마련하는 초석이다.

취재_홍이현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